

# ‘우주’와 ‘명작’...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내일을 열다

## ‘우주의 언어’·‘한국미술명작’ 모티브 화제의 전시 2제

‘우주의 언어’, ‘한국미술명작’을 모티브로 한 화제의 전시 2제(圖)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전시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5일부터 8월 15일)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 ‘우주’와 ‘명작’이라는 키워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한다. 즉 지나온 시간과 지금, 다가올 내일을 다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 예술 너머의 수학, 변화하는 세상

‘우주의 언어-수’전(제1-제2전시실)은 수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주목한다. 사실 우주를 하나의 언어로 정의하면 ‘수’수밖에 없다. 미흡하나마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수’다.

이번 전시는 ‘수학’을 다채로운 시각, 학문적 접근이 아닌 예술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수학의 힘이 구현된 작품들을 만나는 자리다.

권영성, 김주현, 김형호, 송민규, 오현금, 이다희, 이이남, 이주형, 최우람, 홍혜란 등 22명 작가들은 예술과 수학 외에도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토대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인다.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홍성미 미술사가는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하고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역사 이래 수학을 이용한 작가들이 많은데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은 수학적 원리를 작품에 투영했다”며 “이번 전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학의 개념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신은 수학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전시 서문

### 광주시립미술관, 5일~8월 15일

### 수학적 시각 ‘우주의 언어-수’전 근현대 미술사 ‘한국미술명작’전

격이다. 이이남 작가가 수학적 질서와 체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2부 ‘예술 너머 수학: 변화하는 세상을 보여주다’에서는 기하학 바탕의 작품을 만난다. 정재일, 김주현, 홍혜란 작품은 ‘수’가 어떻게 우주의 언어가 됐고, ‘함수’와 ‘기하학’은 어떻게 세상과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조명한다.

수학이 다른 학문과 교섭함으로써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 3부 ‘수학 너머 예술: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다’가 그것. 최우람은 기술공학을 이용한 키네틱 아트로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Space0은 NASA에서 보내온 수를 데이터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 ◇ 근현대 20세기 한국미술 아우르는 기획전

‘한국미술명작’전(제3-제6전시실)은 주요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문화재단, 가나컬렉션, 이견희컬렉션, 개인컬렉션이 참여했으며 30여 명 작가와



SPACE 0 작 'Eternal Light'

140여 점 작품으로 구성했다. 20세기 한국미술을 아우르는 기획전답게 구본웅, 권진규, 김기창, 김은호, 김환기, 문신, 박고석, 박수근, 배운성, 양수아, 오지호, 이성자, 이우환, 이응노, 이인성, 이종섭, 임직순, 장욱진, 천경자, 허백련 등 주요 작가 작품들을 소개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처음 공개되는 박고석 작가의 ‘설악 울산바위’가 이목을 끈다. 노란색 색감과 울산바위 원경을 강렬한 붓치로 구현했는데, 동화적 생명력이 두드러진다.

전시를 기획한 정희석 학예사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명 작가와 작품 위주로 구성했다”며 “국립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으로 공개돼 호응을 얻었던 작품도 20여 점 이상 선보인



박고석 작 '설악 울산바위'

다”고 언급했다.

전시는 모두 4개의 주제로 짜여져 있다.

제3전시실에서는 ‘상상의 공동체를 넘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존재를 천착했던 이우환의 대표작 ‘점으로부터’를 비롯해 구상과 추상 경계를 탐색했던 김기창의 ‘군마도’, 이종섭의 ‘해초와 아이들’, 장욱진의 ‘사찰’ 등도 만난다.

제4전시실 주제는 ‘우아와 아름다움의 세계’. ‘회화는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화한 것’이라 정의한 오지호의 작품, 1930년대 시인 이상의 절정으로 파격적 화풍을 선보였던 구본웅 작품 등도 있다.

제5전시실에서는 근대기 합리와 이성을 민감하게 포착했던 작가들이 소환된다. ‘이성과 합리, 이

성향’을 주제로, 김환기 반구상 작품부터 ‘점화’ 시리즈, 서구 기하학적 추상을 한국적 정서로 구현한 유영국 작품도 관객을 맞는다.

마지막 ‘정체성과 삶’을 초점화한 제6전시실에서는 오윤의 ‘팔업일화’, 배운성의 ‘가족도’ 등을 만난다.

김준기 관장은 “여름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두 전시는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과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명작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미술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능하고 사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며 광주전남지역 주민은 20%할인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가의 시간, 작품 공간에 투영되다

### 작가 5명 ‘시간의 정원’ 전, 5~24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

시간은 양가적인 특징이 있다. 변한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본질상 시간의 흐름은 세상 만물의 변화를 견인하고 새롭음을 잉태한다. 한편으로 그 변화를 창출하는 시간의 속성은 우주 탄생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온 진리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이의 편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무료와 권태의 연속이기도 하다.

예술가는 시간을 저마다의 관점으로 흥미롭게 대상화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며 구현하는 시간도 상이하다. 감정을 이입하는 순간과 그것의 강도, 형상화하는 양상도 다르게 계속된다.

시간은 무엇일까. 시간의 본질을 무엇일까. 작가에게 ‘시간의 정원’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또 어떻게 발현될까.

경험하고 인지한 시간이 각기 다른 5명의 작가가 ‘시간’을 모티브로 전시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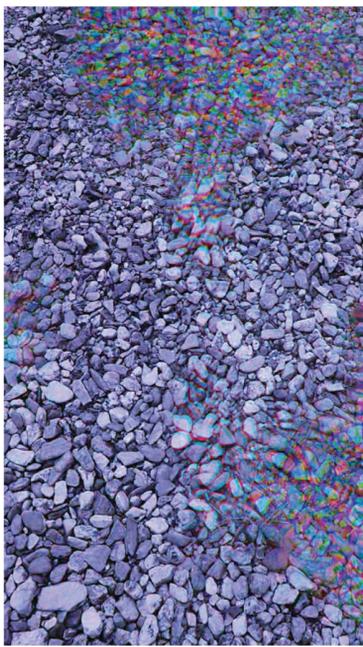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시간의 정원’은 창작자의 시간이 어떻게

작품에 공간화 되는지를 주목한다. 김일권, 배달래, 이견희, 이지승, 신영희 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회화, 영상, 설치 작품 등을 매개로 시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기획을 맡은 CENTER Corp 관계자는 “아티스트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이다”며 “삶과 예술에 대한 작가적 태도는 작품이 드러내는 세계관과 연결되고 작품은 일상을 대변해 동시대성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김일권 작가의 ‘생태의 시간’은 순천만의 풍경을 초점화한다. 지금까지 순천만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왔던 작가는 이번에는 ‘순천만 가는 길’을 영상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순천만 고유의 껍질과 해안, 만과 하늘이 맞닿은 수평성을 여명의 시간으로 불러낸다. 고요하게 꿈틀거리는 순천만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생명을 품은 자연으로 치환되며, 작가는 이것들을 시간의 기제로 서정적이면서도 동화적으로 형상화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일권 작 '순천만 가는길'



‘강은일 해금플러스’가 공연을 펼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 ‘강은일 해금플러스’

### 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향연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강은일 해금플러스’ 초청공연 ‘오래된 미래’를 오는 8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에서 펼친다. ‘뉴 뮤직 그룹’을 기치로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접목해 온 강은일 해금플러스가 개성 있는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강은일의 대표곡 ‘비에 젖은 해금’을 시작으로 영화 ‘탱고레슨’ 삽입곡 등을 재해석한 ‘리베르탱고’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서구적인 화음, 재즈 리듬이 돋보이는 ‘해금 랩소디’가 울려 퍼진다.

해금산조 중 빠르게 돌아치는 자진모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모리모리’도 레퍼토리에 있다.

들판에서 유유자적하는 소 그림자를 구름에 빚낸 ‘하늘소’, ‘서커스’도 관객들을 만난다.

청계구리 설화를 모티브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는 ‘제망모가’, 도피안사(절)의 범종 소리와 해금 선율을 접목해 인간의 신비와 고뇌를 표현한 ‘도피안사’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즉흥곡 ‘밀양’, 옹혜야를 모태로 만든 ‘헤이아’ 등 총 열 개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1999년 결성한 ‘강은일 해금플러스’는 40년 경력 해금연주가 강은일을 주축으로 해금 창작곡, 즉흥 음악, 세계 민속음악 등을 선보여 온 음악 그룹이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무료 공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 국악원, 오산초, 회동 등 오가는 셔틀버스 제공(무료).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아기 관객 위한 ‘오감 만족’ 공연

### ACC재단, 14~16일 ‘얼굴과 얼굴 마주; 봄’·22~30일 ‘마법의 샘’

아기 관객들이 무대 위를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오감 만족 공연, 외국 전설을 보며 상상력을 키우는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별 오감을 만족시키는 두 편의 공연을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먼저 14~16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펼쳐지는 ‘얼굴과 얼굴 마주; 봄’은 14~15일 12개월 이하, 16일 12~18개월 영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사람 얼굴 보는 것을 좋아하는 태생적 특징을 활용한 ‘베이비 씨어터’ 작품이다.

12개월 이하 아이들은 언어보다 청각, 촉각, 시각 등 오감 자극에 더 민감하다. 아이들이 공연 중 마음대로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설치미술, 소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객석은 무대 위에 ‘아기 관객’들을 위해 마련된다.

“직접 손을 뻗어 천이나 인형을 만지면서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했다”, “힘들고 고단한 육아의 나날들을 잠시나마 잊게 되는 순간이었다”, “천이 떨어

지는 멋있는 장면, 아기가기한 소품 등이 너무 사랑스럽다” 등 관람평은 공연에 기대감을 더한다. (무대 위 체험석 2만원, 마주봄석 5000원)

이어 4세 이상(2020년 12월 출생자까지)을 대상으로 22~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상연하는 ‘마법의 샘’도 이목을 끈다.

극은 ACC아시아이야기 그림책 ‘마법의 샘: 타지키스탄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6살 소년 ‘바흐토바르’의 눈을 뜨게 한 신비의 마법샘을 찾아가는 웅장한 음악극이다. 그림자 퍼포먼스, 샌드아트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각적 요소가 집중돼 있다. 왕과 공주, 바흐토바르가 갈등을 풀어가며 화해하는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 교훈을 준다. 관람료 1만5000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ACC 어린이극장 오수환 사업 담당은 “2022년 생애주기콘텐츠를 통해 매년 6월 선보이고 있는 공연이다”며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공연이 주는 ‘예술적 자극’이 아이들의 성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얼굴과 얼굴 마주; 봄’



‘마법의 샘’

##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24’ 참여 국내·외 갤러리 모집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2024 광주국제미술전람회’(이하 아트광주24)에 참여할 국내·외 갤러리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오는 10월 10~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트광주24에 참여할 갤러리를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트광주24 대상은 국내외 갤러리도 회화를 비롯해 조각,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서예 등 미술 분야다.

올해부터는 문화재단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전반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감독으로 윤익 씨를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윤익 예술감독은 프랑스 Paris1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2020년 광주미디어아트페

스티벌 총감독,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총감독을 역임했다.

올해 아트광주24 주제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 주최 측은 올해 갤러리 100여 개 참가와 4000여 작품 전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트마켓 상설 등 민간 기관과 연계한 문화거버넌스 추진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대두된다.

주최 측은 아트마켓을 예술의거리, 대인예술아시장, 광주비엔날레 등 공간·거점별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트광주24에 참여를 희망하는 갤러리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아트광주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24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